

로버트 메넨데즈 미 상원 외교위원장 초청강연
“경제적 국정 운영과 미국의 신국제주의”

메넨데즈 위원장은 국제정치에서 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미국 외교의 핵심은 정치·외교, 경제·통상 등 제반 분야에서 부상하는 아시아에 보다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지역내 국가들과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법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회귀정책’ 혹은 ‘재균형 전략’의 핵심은 기존 동맹 및 우방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관계를 모색하는 한편, 포괄적이고, 투명하며, 제도와 법치질서에 기초한 지역 구도를 지향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특히 현대 국제질서 변화의 근본 동인은 경제력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미국의 아시아 외교는 경제적 운영(economic statecraft)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하고,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환태평양협력체(TPP: Trans-Pacific Partnership)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메넨데즈 위원장은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 보다 굳건하다고 평가하고 새로운 지역질서를 만들어 나감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지적하였다. 또한 미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방미기간 중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밝힌 한반도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의 부상과 관련하여 메넨데즈 위원장은 미국의 아시아 회귀정책은 중국을 견제·봉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차이를 인정하는 가운데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정책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법치주의에 입각하여 제도화된 국제질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국제적 규범을 준수하고 국제사회와 협력을 확대하며, 더욱 건설

적인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하였다. 또한 한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과의 관계발전을 모색하는 것을 지지하였다.

한일관계와 관련하여 역사문제를 직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역사문제는 치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사과와 화해의 노력이 있을 때 그것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려는 자세와 의지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한편, 한국과 일본이 안보분야에서 협력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점을 제기하고 발전이 있기를 희망하였다.

한미동맹과 관련하여 메넨데즈 위원장은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은 조건 달성 여부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방위비 분담 협상은 어떤 정해진 분담 비율이라든지 공식을 고집하여 적용하기 보다는 한미 양측이 열린 마음으로 성실히 협상에 임하여야 한다고 언급하고, 대북억지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를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메넨데즈 위원장은 사건임을 전제로 미국은 양안관계의 발전을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발전되기를 희망함과 동시에 미국은 대만에 대해 방어적 능력 확충을 위해 무기판매를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혔다.